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A Study on Nationwide Survey and Analysis of Operating Small Libraries in Korea

차 성 종(Sung-Jong Cha)**

안 인 자(In-Ja Ahn)***

윤 소 영(So-Young Yoon)****

초 록

본 연구는 전국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본정보, 소장자료, 시설 및 설비, 인적자원, 예산, 이용 및 이용자, 서비스현황 등 정확한 통계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크게 4단계의 단계별 조사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도서관법 기준에 부합하는 2010년 현재 전국의 작은도서관은 총 3,34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349개 작은도서관의 소장자료, 시설 및 설비, 인적자원, 예산, 이용현황, 프로그램 등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 실태는 도서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서관으로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임이 밝혀졌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대부분(80%)을 차지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시설 및 설비, 예산 등 운영상태가 더욱 열악한 실정임이 드러났다. 이런 작은도서관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여 향후 작은도서관 통계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covers the basic information of the small libraries nationwide, holding materials, facilities/equipment, human resources, budget, usage/users, and service etc. The survey is divided into 4 steps to produce accurate statistical data and analyze it. As a result, total 3,349 small libraries meet the criteria of the Library Act in 2010. Their holding materials, facilities/equipment, human resources, budget, usage, service program are lack of providing the knowledge information and reading culture service, which is defined in the Library Act. In particular, the majority of small libraries(80%) are in poor condition to operate library facilities/equipment, budget, and their operation. This study proposes some suggestions to overcome the poor condition and to make small libraries prosperous in the near future.

키워드: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작은도서관 통계, 통계분석, 전국 조사

Small Library, Status Survey, Small Library Statistics, Statistical Analysis, Nationwide Survey

-
- * 이 논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하고, 추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를 분석·정리한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사무관(sjcha@mcst.go.kr) (제1저자)
*** 동원대학교 아동문헌정보과 부교수(ijahn@tw.ac.kr) (공동저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soyoung@kcti.re.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2년 2월 18일 논문심사일자 : 2012년 2월 24일 게재확정일자 : 2012년 3월 6일

1. 서론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연계하는 소분관 역할과 기능을 하는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운동은 1960년대 마을문고 운동에서, 가깝게는 1990년대 주민독서실 등의 지역운동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2000년대부터는 일상 생활권의 소규모 작은도서관 운동에 사회 전반의 관심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중앙도서관 2006).

서구 선진국가에서는 일찍부터 도서관서비스를 정부 중심의 공공서비스로 시행하였지만 국내에서는 초기부터 민간영역에서 상당 부분을 담당하였다. 민간 도서관 운동에서 시작된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 마을 단위의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지원, 주민 접근성 제고 및 생활 친화적 문화 공간 조성' 등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중대형 공공도서관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작은도서관 진흥'이라는 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의 건립이나 운영에 대해 건립비 및 리모델링비 지원,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보급 등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작은도서관의 실태 및 환경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단편적으로나마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파악된 작은도서관 수(문고 포함)는 2009년 12월 현재 3,719개관으로 조사되었고, 이중 약

70% 정도가 소규모의 사립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작은도서관은 지자체 직영, 민간위탁 운영, 개인 및 단체 운영, 새마을 문고, 종교시설 문고, 아파트 작은도서관 등 운영형태, 운영방식 및 종류 또한 다양하지만 그동안 전국 작은도서관의 시설, 인원, 개관시간,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나 정확한 통계가 제대로 산출되지 못하였다. 또한 지자체마다 공·사립 구분, 운영주체 기준 등이 모호하고, 개관일 등이 일정하지 않거나 일정 규모에 미달되는 등 도서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인 실정인데, 이런 사례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작은도서관 통계로 잡혀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서 이미 산출된 통계조차 신뢰성 있는 작은도서관 통계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지역의 작은도서관 등록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소관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거나 뚜렷한 소관부서마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작은도서관의 정확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는 전담인력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체계적인 작은도서관 통계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작은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정보, 소장자료, 시설 및 설비, 인적자원, 예산현황, 이용 및 이용자,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연계 등 7가지 영역의 운영현황에 대해 크게 4단계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가 여러 번 시도되었으나, 작은도서관 장서, 시설 및

설비, 인적자원 등의 세부항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한 전국적 규모의 연구는 거의 없었다. 즉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면적, 휴관일, 운영시간 등의 작은도서관의 단편적인 정보만을 조사하였거나 지역 단위의 작은도서관들에 대한 세부사항 및 우수사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검토한 것에 머무를 뿐,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 조사결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국적 규모로 진행된 본 조사 및 분석결과는 향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민간참여, 공공도서관과의 네트워크 등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작은도서관 기준

2006년 9월에 개정된 『도서관법』과 이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는 공공도서관과 문고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을 뿐이며,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적인 개념의 규정은 이후 2009년 3월에 개정된 『도서관법』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다. 즉 『도서관법』 제2조 제4호가목에서 작은도서관을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국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때 도서관 규모는 '도서관법 제5조의 시설 및 자료기준'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도서관법시행령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시설과 자료기준에 대해 '면적 33제곱미터(약 10평) 이상, 열람석 6석, 도서관 장서 1,000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표 1〉 참조). 이렇게 도서관법에 제시된 작은도서관의 기준은 이전법에서의 '문고' 기준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어서 명칭의 변화만 있을 뿐 규모나 시설 측면은 그대로이다.

도서관법에 명시된 작은도서관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보면 공공도서관과는 다르게 '국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직원을 1인 이상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강행규정이 부재한 상태다(〈표 2〉 참조). 이는 인적 자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작은도서관이 기존의 문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주민에게 전문화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표 1〉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

구분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시설	(인구 2만 미만일 때) - 면적 264㎡(약 80평) - 열람석 60석 이상	- 면적 33㎡(약 10평) - 열람석 6석 이상 ※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료	- 장서 3,000권 이상 - 연간증가 300권 이상	- 장서 1,000권 이상

〈표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 기준

구분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직원	- 330㎡(약 100평)이하 사서직원 3인 - 330㎡(약 100평)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직원 1인 추가 - 장서가 6,000권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6,000권마다 사서직원 1인 추가	-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직원을 1인 이상 둘 수 있다.

2.2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관련 연구

최근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작은도서관의 건립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그 외에 실태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및 통계조사를 다루는 연구도 정책 연구보고서에서 일부 제시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연구사례는 아래와 같다.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된 전국적인 현황조사는 국립중앙도서관(2005)에서 실시한 ‘작은도서관 실태 조사’,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2007)에서 실시한 ‘2007 전국 문고 통계와 현황’, 새마을문고중앙회(2008)에서 실시한 ‘2008 새마을문고 운영 실태조사’가 있었다. 그 외에 각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지자체가 관내의 작은도서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안인자 등 2011).

국립중앙도서관(2005)의 ‘작은도서관 실태 조사’에서는 기존에 운영중인 문고와 2004년에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작은도서관 25개소를 포함한 전국의 작은도서관(문고) 50여곳을 방문하여 그 실태를 점검하고 각 조사기관별로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각 작은도서관의 실태조사 결과표는 우수사례,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사례 등을 따로 구별하여 수록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2007)의 ‘2007 전국의 문고 통계와 현황’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에게 의뢰하여 2006년 12월말 기준 전국 문고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2,966개에 달하는 문고와 77개 문고 관련단체에 대한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수록하였다.

새마을문고중앙회(2008)의 ‘2008 새마을문고 운영 실태조사’에서는 2007년 1년간의 전국 새마을문고의 운영현황 즉 기본정보, 조직, 장서, 열람시설, 재정, 사업실적,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전국 새마을문고 시군구지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작은도서관 현황조사를 포함하여 활성화 방안 등을 주로 다루고 있는 정책 연구보고서로는 국립중앙도서관(2006)의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국립중앙도서관(2006)의 ‘작은도서관(문고 포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2007)의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 국립중앙도서관(2007)의 ‘2006 작은도서관 조성평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2010)의 ‘생활밀착형 사립 작은도서관의 연계·활성화 방안 연구’ 등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2006)의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시작은 민

간 활동이 시발점이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체계와 연계성 속에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견지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그 가운데서도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 안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2006)의 '작은도서관(문고 포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지역문화복지 복합형 작은도서관, 순회·복합형 작은도서관 등 작은도서관의 특성화 전략과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2007)의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주민밀착형 도서관시스템 및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장서, 사서, 이용자, 운영서비스, 프로그램, 위치, 역할, 고려사항, 목표 등 주요 9개 영역에 기반한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과 우리나라 작은도서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들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2007)의 '2006 작은도서관 조성평가'에서는 2006년에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전국의 58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현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지자체와 지역민, 민간기업 협력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분석하여 작은도서관 시범지구를 조성을 위한 기준과 평가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2010)의 '생활밀착형 사립 작은도서관의 연계·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공립에 비교하여 열악한 조건에서 공공적 도서관서비스에 기여하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작은도서관 통계조사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한 작은도서관 정보화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현황분석을 실시하고, 이들의 시설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른 현안 분석을 통해 사립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협력방안 및 전략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의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와 관련된 연구는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 조사결과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단지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다루고 있는 정책 연구에서 전국 작은도서관 현황조사와 평가가 일부 포함되었을 따름이다.

3.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3.1 실태조사 지표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태조사 지표는 기존의 「전국 도서관 통계조사」에 사용되었던 작은도서관 통계조사 지표를 대폭 개선하고 기존에 수행되었던 작은도서관 관련 각종 실태조사, 선정 기준 및 평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활용하여, 실제 작은도서관 실태 파악 및 활성화 방안 마련에 기반에 되는 항목으로 구성 개발하였다.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은 안인자 등(2011)의 '작은도서관 통계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대략적

인 선정방향 및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통계항목 선정의 방향은 기존의 『전국 도서관 통계조사』의 작은도서관(문고)의 조사 항목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통계 산출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계조사 항목수를 기본적으로 핵심지표 위주로 단순화하여 응답이 가능한 실용성 있는 항목을 선정하자는 것이다.

둘째, 이런 기본적인 방향에 입각하여 기존의 작은도서관 현황조사 4종,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 7종의 항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2차에 걸친 자문회의, 108개 작은도서관 현장조사를 통하여 주요항목을 선정하였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분관 혹은 연계를 통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적합한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의 결과에 따라 정책적으로 필요한 일부의 항목을 추가하였다(안인자 등 2011).

셋째, 도서관 기본정보 영역에서는 도서관명,

설립주체(공립, 사립), 운영주체(지자체 직영, 민간위탁, 사립), 분관 여부, 사립 작은도서관 유형(개인 및 법인 운영, 새마을 문고, 종교시설 운영, 아파트 문고 등), 설립취지를 파악하기 위한 특수목적 작은도서관 형태(다문화, 청소년, 장애인, 종교인, 기타) 사항 등이 작은도서관의 성격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포함되었으며, 반면에 공공도서관의 일반현황으로 조사되는 자료 분류체계, 목록규칙, 저자사항은 전문인력 미배치, 자료 정리체계 미비 등 대부분의 작은도서관 현장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여 실태조사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실태조사 지표는 7개 영역 33개 항목(기본정보 영역 제외)이다. '도서관 기본정보' 항목을 포함한 실태조사 항목의 영역과 항목 구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으며, 본 연구는 <표 3>의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표 3>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항목 영역과 항목 구성

조사영역	조사내용		
1. 도서관 기본정보	작은도서관 명칭		
	개관한 연도		
	소속 지자체(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카페		
	작은도서관 특성	지역 공공도서관 분관 여부	
		공·사립 여부 / 운영주체 및 유형	
		특수목적 작은도서관의 형태	
	응답자(운영자관련사항)	응답자이름	
		연락처	
		E-mail	
		직책(대표자 / 운영자 / 자원봉사자)	
운영자의 작은도서관 운영기간			
	운영자의 관리 및 운영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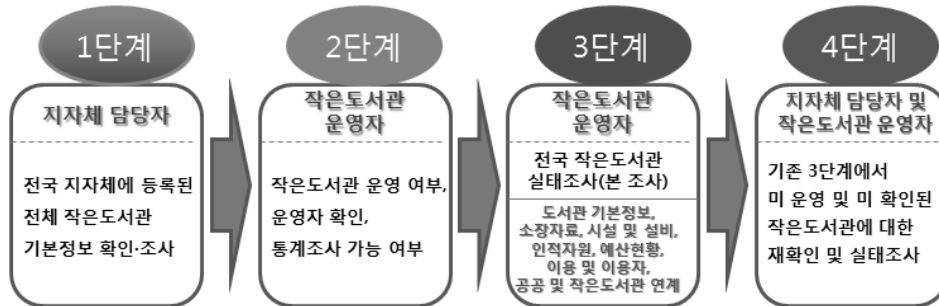
조사영역	조사내용	
2. 소장자료	현재 총 장서 현황	도서관 총 장서
		현재 총 도서자료
	2010년 증가 현황	현재 총 연속간행물자료
		2010년 총 증가장서
		2010년 증가 연속간행물자료
3. 시설 및 설비	전용면적	
	열람석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의 수	관리자용
	도서 관리프로그램 유무	이용자용
4. 인적자원	인력 수	직원 / 자원봉사자(인원)
	사서자격증 유무	직원 / 자원봉사자(인원)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교육 경험 유무	직원 / 자원봉사자(인원_시간)
5. 예산현황	수입원	행정기관 지원
		회원 회비 및 이용료
		후원금
		자부담(운영자 자체부담)
		기타
	예산지출내역	도서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총 예산 지출내역
6. 이용 및 이용자	운영시간	개관일수 / 개관시간(평일-주말)
	도서대출	외부대출 가능 여부
		대출도서 관리방법
		상호정보협력망 구축 여부
		연간 대출권수
	이용자 관련내용	이용자수(1일 평균 / 연간 총)
회원 등록자수		
7.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연계	상호대차서비스 유무	
	순회사서 유무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 지원 유무	지원내용(인력 / 예산 / 지원장서 / 문화프로그램 / 기타)
	독서-문화프로그램 실시 여부	프로그램수 / 실시횟수 / 참가자수

3.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크게 4단계의 조사방식에 의해, <그림 1>과 같은 각 단계별 연구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단계에서는 작은도서관이 실제로 존재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서관 수와 명단을 확인하였고, 둘째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확인된 작은도서관(총 4,159개)의 목록에 기초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의 운영여부, 운영자 확인, 통계조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셋째 단계에서는



〈그림 1〉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연구방법

2단계에서 확인된 통계조사 가능 작은도서관(총 2,533개)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지표에 기반하여 전화, 온라인조사, 이메일 등 다양한 설문방법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넷째 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조사 진행이 불가능했던 작은도서관과 3단계의 조사에서 누락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담당자가 작은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운영자

〈표 4〉 실태조사 대상 전국 작은도서관(3,349개관) 현황

(단위 : 개관, %)

광역자치단체	1단계에서 등록된 도서관 수 (지자체 공무원 등록)	추가로 확인된 도서관 수 (지자체 공무원 등록)	설문조사에서 제외된 수*	운영현황 확인 작은도서관 수	지자체별 설문 회수율 (운영자 응답률)
서울	666	16	132	550	100.0
부산	145	7	43	109	100.0
대구	115	2	10	107	100.0
인천	150	2	36	116	100.0
광주	190	4	42	152	100.0
대전	205	5	27	183	100.0
울산	59	3	9	53	100.0
경기	970	44	206	808	100.0
강원	145	3	23	125	100.0
충북	185	5	74	116	100.0
충남	196	14	53	157	100.0
전북	223	2	34	191	100.0
전남	226	4	68	162	100.0
경북	184	10	37	157	100.0
경남	329	30	83	276	100.0
제주	171	1	85	87	100.0
합계	4,159	152	962	3,349	100.0

* 설문조사에서 제외된 수: 2010년 현재 폐관 및 운영중단/2011년 개관 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 법적 기준미달/도서관명 중복응답 포함

를 확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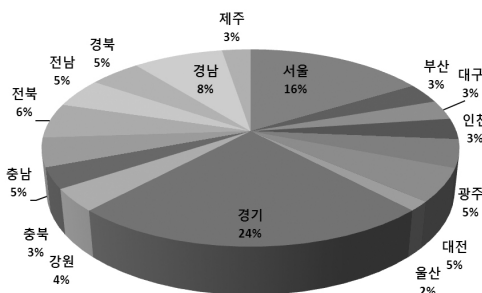
이렇게 이번 실태조사는 2011년 1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27주 동안 전자메일, 팩스, 전화, 온라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2011 작은도서관 통계조사 지표' 설문에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위의 4단계의 조사과정을 거쳐 2010년 현재 『도서관법』 기준에 부합하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수는 총 3,349개로 조사되었다. 작은도서관의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에 대한 통계처리 및 분석은 SPSSWIN 15.0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4.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 분석

4.1 작은도서관의 기본정보 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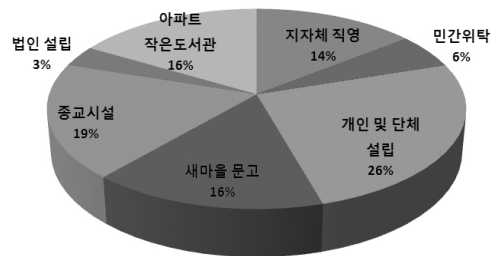
작은도서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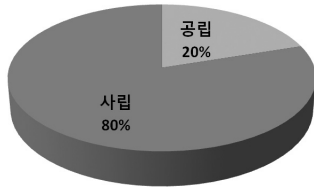
〈그림 2〉 지역별 분포

808개관(24.1%), 서울 550개관(16.4%), 경남 276개관(8.2%), 전북 191개관(5.7%), 대전 183개관(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공립 작은도서관 중에서는 지자체 직영이 14.4%, 민간위탁이 5.6%, 사립 작은도서관 중에서는 개인 및 단체가 25.6%, 새마을문고가 15.9%, 종교시설이 18.6%, 법인이 3.4%,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16.6%로 운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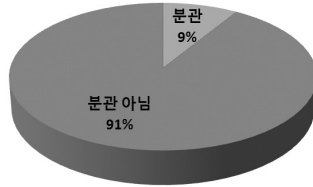
또한 공·사립 유형은 공립 작은도서관이 669개로 전체의 약 20%, 사립 작은도서관은 2,680개로 전체 작은도서관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분석에 활용된 전체 작은도서관중 공공도서관의 분관인 도서관은 297개(8.9%), 분관이 아닌 도서관은 3,052개(91.1%)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설립취지를 파악하기 위한 특수목적 작은도서관의 형태로는 다문화 1.4%, 청소년 9.7%, 장애인 0.2%, 종교인 2.8%, 기타 12.8%에 달했고, 대다수의 작은도서관(2,448개관, 73.1%)은 일반인 이용자를 위한 작은도서관으로 파악되었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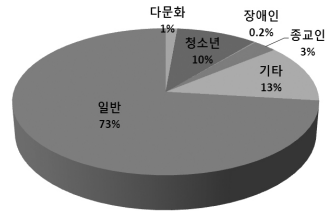
〈그림 3〉 운영주체별 구분



〈그림 4〉 공·사립 구분



〈그림 5〉 분관 여부



〈그림 6〉 특수목적 형태

4.2 작은도서관 소장자료

4.2.1 자료현황 분석

2010년 12월 현재 전국 작은도서관 3,349개관의 총 자료수는 17,548천권으로 1관당 평균보유 자료수는 약 5,240여 권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1,000권 이상 3,000권 미만의 자료를 보유한 작은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36.0%이고, 10,000권 이상의 자료를 보유한 작은도서관이 11.9%임을 감안하면 작은도서관별로 소장 자료수에 대한 편차가 크을 알 수 있었다(〈표 5〉 참조).

도서관 유형별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표 5〉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 소장 자료 현황

(N=3,349)

항목	1000권 이상 3000권 미만		3000권 이상 5000권 미만		5000권 이상 10000권 미만		10000권 이상		합계			평균 자료수 (권)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자료수(권)	평균값	
자료수	1,207	36.0	805	24.0	940	28.1	397	11.9	3,349	100	17,548,091	5,240	
공·사립 유형	공립	87	13.0	121	18.1	278	41.6	183	27.4	669	100	5,355,599	8,017
	사립	1,120	41.8	684	25.5	662	24.7	214	8.0	2,680	100	12,192,492	4,548
광역 자치 단체	서울	108	3.2	117	3.5	203	6.1	122	3.6	550	16.4	3,918,461	7,124
	부산	44	1.3	21	0.6	27	0.8	17	0.5	109	3.3	598,146	5,488
	대구	37	1.1	23	0.7	32	1.0	15	0.4	107	3.2	580,047	5,421
	인천	32	1.0	34	1.0	38	1.1	12	0.4	116	3.5	618,216	5,329
	광주	88	2.6	29	0.9	31	0.9	4	0.1	152	4.5	493,696	3,248
	대전	77	2.3	51	1.5	48	1.4	7	0.2	183	5.5	760,522	4,156
	울산	20	0.6	14	0.4	16	0.5	3	0.1	53	1.6	238,773	4,505
	경기	281	8.4	185	5.5	223	6.7	119	3.6	808	24.1	4,750,544	5,879
	강원	56	1.7	35	1.0	24	0.7	10	0.3	125	3.7	468,197	3,746
	충북	61	1.8	36	1.1	17	0.5	2	0.1	116	3.5	381,737	3,291
	충남	76	2.3	39	1.2	30	0.9	12	0.4	157	4.7	643,450	4,098
	전북	71	2.1	47	1.4	56	1.7	17	0.5	191	5.7	925,021	4,843
	전남	74	2.2	38	1.1	43	1.3	7	0.2	162	4.8	648,289	4,002
	경북	54	1.6	43	1.3	56	1.7	4	0.1	157	4.7	684,089	4,357
경남	90	2.7	64	1.9	82	2.4	40	1.2	276	8.2	1,508,316	5,465	
제주	38	1.1	29	0.9	14	0.4	6	0.2	87	2.6	330,587	3,800	

평균 8,017권,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평균 4,548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5,000권 이상에서 10,000권 미만의 자료 보유 도서관 비율이 41.6%로 가장 높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1,000권 이상에서 3,000권 미만의 자료 보유 도서관 비율이 41.8%로 가장 높아 공립과 사립 작은도서관간 평균 소장 자료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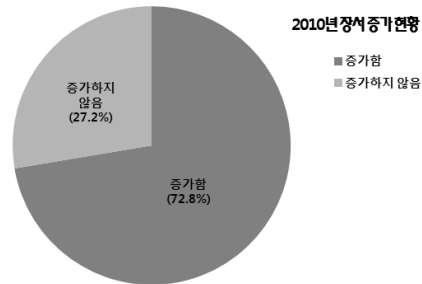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자료 현황을 분석하면, 서울이 평균 7,124권의 자료를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장 높은 평균 자료수를 나타냈으며, 광주가 평균 3,248권의 자료를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장 낮은 평균 자료수를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지역은 1,000권 이상에서 3,000권 미만의 자료를 보유한 작은도서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은 5,000권 이상 10,000권 미만의 자료를 보유한 작은도서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2.2 2010년 장서 증가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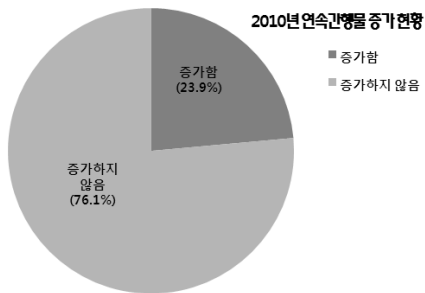
먼저 전체 작은도서관(N=3,349) 중에서 2010년 1년 동안 보유 도서(인쇄자료)의 증가를 보여준 작은도서관은 2,439개관(72.8%)이었으며, 산출된 총 증가 도서수는 약 1,924천여권에 달해 2010년에 도서가 증가된 작은도서관 1관당 평균 증가 도서수는 약 789권으로 나타났다(〈그림 7〉 참조).

그리고 전체 작은도서관 중에서 2010년 1년 동안 연속간행물(인쇄자료)의 증가를 보여준 작은도서관은 801개관(23.9%)이었으며, 산출된 연속간행물의 수는 총 7,983종(중복 포함)으로 2010년에 연속간행물 수가 증가된 작은도서관의 1관당 평균 증가 종수는 약 9종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참조).



〈그림 7〉 전국 작은도서관 장서증가 현황



〈그림 8〉 전국 작은도서관 연속간행물 증가 현황

4.3 작은도서관 시설 및 설비

4.3.1 '전용면적' 분석

전국 작은도서관 3,349개관 중 결측값(N=4)을 제외하고 분석에 활용된 전국 작은도서관(N=3,345)의 평균 면적은 약 181.6㎡(약 55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3㎡ 이상 99㎡ 미만의 작은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이며, 165㎡ 이상 작은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율도 약 17%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용면적 평균에 대한 편차가 크을 수 있다(〈표 6〉 참조).

도서관 유형별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표 6〉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 전용면적 현황

(N=3,349)

항목	33㎡ 이상 99㎡ 미만		99㎡ 이상 165㎡ 미만		165㎡ 이상		전체*		평균 면적(㎡)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건물 면적	1,997	59.6	783	23.4	565	16.9	3,345	99.9	181.6	
공·사립 유형	공립	279	41.7	177	26.4	213	31.8	669	100	330.2
	사립	1,718	64.1	606	22.6	352	13.1	2,676	99.8	144.5
광역지방 자치단체	서울	377	11.3	103	3.1	70	2.1	550	16.4	282.3
	부산	65	1.9	29	0.9	15	0.4	109	3.3	103.0
	대구	56	1.7	32	1.0	19	0.6	107	3.2	197.1
	인천	75	2.2	23	0.7	17	0.5	115	3.4	103.1
	광주	98	2.9	37	1.1	16	0.5	151	4.5	91.4
	대전	124	3.7	39	1.2	20	0.6	183	5.5	97.2
	울산	36	1.1	8	0.2	8	0.2	52	1.6	211.4
	경기	479	14.3	195	5.8	133	4.0	807	24.1	231.4
	강원	71	2.1	28	0.8	26	0.8	116	3.5	152.6
	충북	62	1.9	28	0.8	26	0.8	116	3.5	151.6
	충남	86	2.6	42	1.3	29	0.9	157	4.7	107.8
	전북	103	3.1	45	1.3	43	1.3	191	5.7	140.3
	전남	92	2.8	36	1.1	34	1.0	162	4.8	160.4
	경북	82	2.5	43	1.3	32	1.0	157	4.7	160.7
	경남	151	4.5	70	2.1	55	1.6	276	8.3	122.2
제주	40	1.2	25	0.7	22	0.7	87	2.6	156.4	

* 결측값 제외

평균 330.2㎡,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평균 144.5㎡의 전용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모두 33㎡ 이상 99㎡ 미만 면적의 도서관이 각각 279개(41.7%), 1,718개(6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전용면적 현황을 분석하면, 서울 지역의 작은도서관 평균 면적이 282.3㎡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와 대전 지역이 각각 평균 91.4㎡, 97.2㎡의 전용면적을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장 낮은 평균 전용면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전국 모든 시

도에서 33㎡ 이상에서 99㎡ 미만의 전용면적을 보유한 작은도서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3.2 ‘열람석’ 분석

2010년 12월 현재 전국 작은도서관 3,349개의 평균 열람석 수는 약 27.8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2석 이상 24석 미만, 24석 이상 48석 미만의 열람석을 갖춘 작은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205개, 1,104개로 전체 작은도서관의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 열람석 현황

(N=3,349)

항목	6석 이상 12석 미만		12석 이상 24석 미만		24석 이상 48석 미만		48석 이상		합계		평균 열람석 수 (석)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평균값	
열람석 수	550	16.4	1,205	36.0	1,104	33.0	490	14.6	3,349	100.0	27.8	
공·사립 유형	공립	110	16.4	230	34.4	223	33.3	106	15.8	669	100.0	26.3
	사립	440	16.4	975	36.4	881	32.9	384	14.3	2,680	100.0	27.7

〈표 8〉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 도서 관리프로그램 유무 현황

(N=3,349)

항목	전용프로그램 사용		수기입력		기타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도서프로그램 유무	1,414	42.2	779	23.3	240	7.2	2,433	72.6	
공·사립 유형	공립	506	75.6	51	7.6	25	3.7	582	87.0
	사립	908	33.9	728	27.2	215	8.0	1,851	69.1

* 결측값(무응답) 제외

도서관 유형별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평균 26.3석,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평균 27.7석의 열람석을 보유하여 공·사립 유형별로는 열람석 수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모두 12석 이상 24석 미만 면적의 도서관이 각각 230개(34.4%), 975개(3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4.3.3 '도서 관리프로그램 유무' 분석

2010년 12월 현재 전국 작은도서관 3,349개관 중 도서관의 대출도서 관리 등 도서관 관리를 위해 별도의 체계화된 전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도서관이 1,414개관으로 조사되어 전체 작은도서관 중 약 4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용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장부 등에 수기로 대출도서를 관리하는 도서관도 779개관, 전용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엑셀, 워드 프로세스 등 기타 전산화 도구 등을 활용하여

도서 관리를 하는 도서관도 240개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 유형별로는 공립 작은도서관 506개관(75.6%), 사립 작은도서관 908개관(33.9%)이 전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도서 관리 등 도서관 운영에 활용중인 것으로 밝혀졌다(〈표 8〉 참조).

4.4 작은도서관 인적자원

4.4.1 '인력수' 분석

전국 작은도서관 3,349개관의 운영인력을 분석하면, 직원이 근무중인 도서관은 1,874개관(56.0%), 자원봉사자가 있는 도서관은 2,180개관(65.1%)으로 나타났다.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응답한 1,874개 작은도서관에서 일하는 총 직원수는 3,097명으로 도서관 당 약 1.7명의 직원이 근무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2,180개 작은도서관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의 총 인원은 20,771명

으로, 도서관 당 약 9.5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 작은도서관 중에서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모두 포함하여 2명이 근무하는 곳은 642개관, 3명이 근무하는 곳은 508개관, 4명이 근무하는 곳은 285개관, 5명 이상인 도서관은 1,274개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원이거나 자원봉사자가 단 한명도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도서관도 무려 467개관이나 달했다(〈표 9〉 참조).

도서관 유형별로는 전체 공립 작은도서관의

83%인 555개관에서 평균 3.4명의 직원이 근무중이고, 전체 사립 작은도서관의 49%인 1,319개관에서 평균 1.7명의 직원이 근무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공·사립 유형별로 근무 직원수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원봉사자 측면에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62%인 419개관에서 평균 8.7명의 자원봉사자가 근무중이고, 사립 작은도서관의 65%인 1,761개관에서 평균 9.7명의 자원봉사자가 근무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자원봉사자수에서는 공·사립 유형별

〈표 9〉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 인력수 현황

(N=3,349)

항목		빈도	%	인원수
직원	없음(확인 불가 포함)	1,475	44.0	-
	1인	1,243	37.2	-
	2인 이상	631	18.8	-
	합계	3,349	100.0	-
	공립	555	83.0	1,865
	사립	1,319	49.2	2,232
	합계	1,874	56.0	3,097
자원봉사자	없음(확인 불가 포함)	1,169	34.9	-
	1인	454	13.6	-
	2인	322	9.6	-
	3인 이상	1,404	41.9	-
	합계	3,349	100.0	-
	공립	419	62.6	3,672
	사립	1,761	65.7	17,099
합계	2,180	65.1	20,771	
직원 + 자원봉사자	없음(확인 불가 포함)	467	13.9	-
	1인	642	19.2	-
	2인	508	15.2	-
	3인	285	8.5	-
	4인	173	5.2	-
	5인 이상	1,274	38.0	-
	합계	3,349	100.0	-
	공립	627	93.7	4,537
	사립	2,225	83.0	19,331
합계	2,852	85.2	23,868	

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합친 현황에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94%인 627개관에서 4,537명의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근무중이고, 사립 작은도서관의 83%인 2,225개관에서 19,331명의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근무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 작은도서관의 85%인 2,852개관의 도서관에서 평균 8.3명(전체 23,868명)의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2 ‘사서자격증 유무’ 분석

전국 작은도서관 3,349개관 중에서, 사서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근무중인 도서관은 319개(9.5%), 사서자격을 보유한 자원봉사자가 있는 도서관은 272개(8.1%)로 나타났다. 사서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응답한 319개 작은도서관에서 일하는 총 직원수는 391명

으로 전체 작은도서관 당 약 0.1명의 직원이 사서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서자격을 보유한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272개 작은도서관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 수는 1,283명으로, 전체 작은도서관 기준 약 0.4명의 자원봉사자가 사서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 작은도서관 중에서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모두 포함하여 사서자격을 보유한 인원이 2명인 곳은 97개관, 3명인 곳은 27개관, 4명 이상인 도서관은 170개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서자격을 보유한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단 한명도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도서관도 무려 2,816개관, 전체 작은도서관의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4.4.3 ‘교육 경험’ 분석

전국 작은도서관 3,349개관 운영자의 교육경

〈표 10〉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 사서자격증 유무 현황

(N=3,349)

항목		빈도	%
직원	없음(확인 불가 포함)	3,030	90.5
	1인	261	7.8
	2인 이상	58	1.7
	합계	3,349	100.0
자원봉사자	없음(확인 불가 포함)	3,077	91.9
	1인	145	4.3
	2인	55	1.6
	3인 이상	72	2.2
	합계	3,349	100.0
직원 + 자원봉사자	없음(확인 불가 포함)	2,816	84.1
	1인	339	10.1
	2인	97	2.9
	3인	27	0.8
	4인 이상	70	2.1
	합계	3,349	100.0

〈표 11〉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 교육 경험 현황

(N=3,349)

항목	있음		없음 (확인불가능한 도서관포함)		합계	
	빈도	%	빈도	%	인원	교육시간
직원	447	13.3	2,902	86.7	577명	6,032시간
자원봉사자	395	11.8	2,954	88.2	1,791명	6,092시간

험 현황을 분석하면, 직원이 도서관 운영 관련 된 교육을 받은 경우는 총 447개관(13.3%)으로, 577명의 직원이 총 6,032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집계되어 교육 경험이 있는 직원 1인당 평균 10.5시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가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395개관(11.8%), 1,791명의 자원봉사자가 총 6,092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집계되어 교육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 1인당 3.4시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작은도서관의 전담 직원이 자원봉사자에 비해서 도서관 운영 교육을 약 3배 정도 많이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11〉 참조).

4.5 작은도서관 예산현황

4.5.1 '수입원' 분석

전국 작은도서관 예산 수입원을 분석하면, 3,349개 작은도서관 중 1,425개의 도서관이 '행정기관 지원'을 통해, 1,262개의 도서관이 '자부담(운영자 자체부담)'을 통해, 535개의 도서관이 '후원금'을 통해, 393개의 도서관이 '회원회비 및 이용료'를 통해, 440개의 도서관이 '기타' 방법으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유형별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행정기관의 지원(82.1%)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부담(14.2%), 후원금(6.6%) 순으로 나타났고,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부담(43.5%)으로 운영하는 곳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행정기관 지원(32.7%), 후원금(18.3%)의 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12〉 참조).

4.5.2 '예산' 분석

전국 작은도서관 예산 현황을 분석하면, 전체 3,349개 작은도서관 중 44.5%인 1,490개관이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연간 100만원 미만의 예산을 지출하고, 21.9%인 734개관이 연간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0.8%인 696개관이 1,000만원 이상, 12.8%인 429개관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3,349개관의 2010년 연간 총 지출예산은 25,464백만원으로 나타나, 2010년 한 해 동안 1관당 평균 760만원 정도의 도서관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서관 유형별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46.6%가 1,000만원 이상, 사립 작은도서관의 48.1%가 100만원 미만의 연간 예산을 2010년에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공립과 사립 작은도서관간 도서관 운영에 사용되는 예산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표 13〉 참조).

〈표 12〉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 수입원 현황

(N=3,349)

항목	공립		사립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수입원 (복수응답)*	행정기관지원	549	82.1	876	32.7	1,425	42.6
	회원회비 및 이용료	31	4.6	362	13.5	393	11.7
	후원금	44	6.6	491	18.3	535	16.0
	자부담	95	14.2	1,167	43.5	1,262	37.7
	기타	35	5.2	405	15.1	440	13.1

* 항목별 결측값 제외

〈표 13〉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 예산 현황

(N=3,349)

항목	공립		사립		합계		예산총액 (단위: 백만원)	
	빈도	%	빈도	%	빈도	%		
총지출예산	100만원 미만	202	30.2	1,288	48.1	1,490	44.5	115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82	12.3	652	24.3	734	21.9	1,821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73	10.9	356	13.3	429	12.8	3,043
	1000만원 이상	312	46.6	384	14.3	696	20.8	20,484
	합계	669	100.0	2,680	100.0	3,349	100.0	25,464

* 항목별 결측값 제외

4.6 작은도서관 이용 및 이용자

4.6.1 ‘운영시간’ 분석

먼저 전국 작은도서관 3,349개관의 연중 운영 일수를 살펴보면 93.7%인 3,138개의 도서관이 12개월 내내 연중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영 요일로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관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이 각각 53.9%, 31.7%인데 반해 주중인 평일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비율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이 주말 보다는 평일에 운영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중의 다른 평일에 비해 월요일에 개관하는 도서관 비율이 낮은 것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상당수가 본관과 같이 월요일

일에 휴관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표 14〉 참조).

작은도서관의 운영일수를 분석하면, 공립과 사립 작은도서관 모두 일주일 중 5일간 운영하는 도서관의 비율이 4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일간 운영하는 도서관도 3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운영 요일에 대한 분석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운영하는 도서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약 10%에 달하는 270여개관의 도서관이 일주일 중 3일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운영 환경이 많이 열악함을 엿볼 수 있었다(〈표 15〉 참조).

또한 작은도서관의 운영 시간을 분석하면, 평

〈표 14〉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 운영월 및 운영요일 현황

운영개월 및 운영요일		빈도	%
운영개월	유동적 운영	44	1.3
	2개월	3	0.1
	3개월	2	0.1
	4개월	10	0.3
	5개월	9	0.3
	6개월	11	0.3
	7개월	8	0.2
	8개월	8	0.2
	9개월	13	0.4
	10개월	19	0.6
	11개월	84	2.5
	12개월(매월)	3,138	93.7
합계		3,349	100.0
운영요일 (복수응답)	월	2,755	82.3
	화	3,081	92.0
	수	3,156	94.2
	목	3,077	91.9
	금	3,128	93.4
	토	1,807	53.9
	일	1,063	31.7

〈표 15〉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 일주일 중 운영일 현황

운영일수(일주일)	공립		사립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1일	3	0.4	79	2.9	82	2.4
2일	3	0.4	99	3.7	102	3.0
3일	4	0.6	92	3.4	96	2.9
4일	5	0.7	74	2.8	79	2.4
5일	319	47.7	1,042	38.9	1,361	40.6
6일	257	38.4	774	28.9	1,031	30.8
7일	78	11.7	520	19.4	598	17.9
합계	669	100.0	2,680	100.0	3,349	100.0

일의 경우 공립과 사립 작은도서관 모두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동안 운영을 하는 비율이 전체의 49.1%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주말의 경우는 공립 작은도서관은 8시간 이상 12시간 미

만 동안 운영하는 비율이 12.2%, 사립 작은도서관은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동안 운영하는 비율이 34.5%를 각각 차지하여 가장 높았는데, 전체 도서관을 합한 비율은 약 56%인 1,016개의

작은도서관이 주말에 8시간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16〉 참조).

4.6.2 ‘자료 대출’ 분석

전국 작은도서관 3,349개관중 73.3%인 2,454개관은 외부 도서대출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그중 공립 작은도서관은 87.4%인 583개관, 사립은 69.7%인 1,869개관의 도서관이 각각 외부로 도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7〉 참조).

도서 대출을 실시한 전국 작은도서관의 2010년 기준 연간 도서 대출권수를 살펴보면, 한 해

동안 전국 작은도서관 2,296개관에서 총 17,725천권의 대출권수를 기록하여 도서 대출을 실시한 도서관 1관당 평균 대출권수는 약 7,720여 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서관 유형별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560개관에서 평균 15,483권,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1,736개관에서 평균 5,216권의 자료를 2010년 한 해 동안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도서 대출을 실시한 작은도서관 중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의 평균 도서 대출권수가 사립 작은도서관의 약 3배에 달할 정도로 높아, 공립과 사립 작은도서관 간 연간 평균 대출권수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을

〈표 16〉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 운영시간 현황

(N=3,349)

운영시간(평일과 주말)		공립		사립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평일	4시간 미만	24	3.6	384	15.4	408	12.9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98	14.7	936	37.6	1,034	32.8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505	75.8	1,045	42.0	1,550	49.1
	12시간 이상	39	5.9	123	4.9	162	5.1
	합계*	666	100	2,488	100	3,154	100.0
주말	4시간 미만	32	8.0	237	16.6	269	14.7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118	29.6	629	44.1	747	40.9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223	56.0	472	33.1	695	38.1
	12시간 이상	25	6.3	89	6.2	114	6.2
	합계*	398	100	1,427	100	1,825	100.0

* 결측값 제외

〈표 17〉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 외부대출 가능 여부 현황

(N=3,349)

항목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외부대출 가능여부		2,454	73.3	473	14.1	2,927	87.4
공·사립 유형	공립	585	87.4	39	5.8	624	93.3
	사립	1,869	69.7	434	16.2	2,303	85.9

* 결측값(무응답) 제외

알 수 있었다(〈표 18〉 참조).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외부로 도서 대출이 가능한 작은도서관 2,454개관 중 실지로 도서 대출을 실시한 도서관은 2,296개관으로 나타나,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약 158개의 작은도서관은 2010년에 외부로 도서 대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6.3 '이용자수' 분석

2010년 기준 전국 작은도서관 3,349개관의 이용자수 현황을 살펴보면, 주중의 1일 평균 이용자수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55명, 사립 작은도서관이 24명이며, 주말의 1일 평균 이용자수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약 66명, 사립 작은도서관이 29명으로 조사되어 공, 사립을 막론하고 주중보

다는 주말에 이용자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연간 이용자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평균 이용자수가 13,681명,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4,386명으로 나타나 공립 작은도서관의 평균 연간 이용자수가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작은도서관에 등록된 총 이용자수(회원 등록자수)의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이 평균 1,689명, 사립 작은도서관이 평균 646명으로 나타나 등록 이용자수에 있어서도 공립 작은도서관이 훨씬 높은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이용자수 현황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비해 인력, 장소 등의 인프라 측면에서 여건이 나은 공립 작은도서관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용자를 유치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표 19〉 참조).

〈표 18〉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 연간 도서 대출권수 현황

(N=3,349)

항목	연간 도서 대출권수			평균 대출권수	
	빈도*	%	합계(권)	평균값(권)	
자료수	2,296	68.6	17,725,061	7,720	
공·사립 유형	공립	560	83.7	8,670,760	15,483
	사립	1,736	64.8	9,054,301	5,216

* 결측값(무응답) 제외

〈표 19〉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 이용자수 현황

항목	1일 이용자 수(명)				연간 이용자 수(명)		등록된 이용자 수(명)	
	주중		주말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빈도*(개)	617	2,106	367	1,177	591	2,018	548	1,838
%	92	79	55	44	88	75	82	69
합계	33,665	50,835	24,153	33,859	8,085,377	8,850,833	925,530	1,187,812
평균	55	24	66	29	13,681	4,386	1,689	646

* 결측값(무응답) 제외

4.7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

4.7.1 '상호대차서비스' 분석

전국 작은도서관 3,349개관 중 2010년 현재 타 도서관과 상호대차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은 9.5%에 불과한 319개 도서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26.0%인 174개관, 사립 작은도서관의 5.4%인 145개관이 현재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작은도서관에서의 상호대차서비스는 그렇게 활발하게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가 많아서 사립 작은도서관에 비해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20〉 참조).

4.7.2 '순회사서 지원' 분석

전국 작은도서관 3,349개관 중 파견된 사서가 도서관리프로그램 설치, 도서구입 및 정리,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업무담당자 및 이용자 교육 등을 실시해 주는 '순회사서 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은 2010년 현재 9.5%인 319개 도서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20.9%인 140개관, 사립 작은도서관의 5.4%인 145개관이 현재 순회사서를 지원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미미한 숫자의 작은도서관에서 순회사서를 지원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순회사서 지원'의 경우 또한 공립 작은도서관이 사립 작은도서관에 비해 지원받는 비율이 훨씬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21〉 참조).

4.7.3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의 지원' 분석

전국 작은도서관 3,349개관 중 2010년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은 50%에 달하는 1,674개 도서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73.8%인 494개관, 사립 작은도서관의

〈표 20〉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 상호대차서비스 현황

항목	이용		이용하지 않음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상호대차서비스 이용유무	319	9.5	2,647	79.0	2,966	88.6	
공·사립 유형	공립	174	26.0	457	68.3	631	94.3
	사립	145	5.4	2,190	81.7	2,335	87.1

* 결측값(무응답) 제외

〈표 21〉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 순회사서 지원 현황

항목	지원받음		지원받지 않음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지원여부	319	9.5	2,635	78.7	2,954	88.2	
공·사립 유형	공립	140	20.9	487	72.8	627	93.7
	사립	179	6.7	2,148	80.1	2,327	86.8

* 결측값(무응답) 제외

44.0%인 1,180개관이 공공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거의 절반 가량의 작은도서관에서 지자체나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유무형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22〉 참조).

2010년 현재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 1,687개관 가운데 인력 지원을 받는 곳은 전체의 13.7%인 458개관, 예산 지원을 받는 곳은 34.3%인 1,152개관, 장서 지원을 받는 곳은 21.6%인 724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곳은 10.5%인 350개관, 기타 지원을 받는 곳은 6.1%인 205개관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도서관 시설 리모델링 지원, 컴퓨터나 프로젝터 같은 IT기기 지원, TV 등의 시청각교육 설비 지원, 서가·장식장 등 가구 및 비품 지원 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유형별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인력, 예산 및 장서 부문에서 전체의 30%가 넘는 도서

관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예산 지원을 받는 도서관이 전체의 28.6%를 차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표 23〉 참조).

4.7.4 ‘독서·문화프로그램 실시’ 분석

전국 작은도서관 3,349개관 중 2010년 동안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한 작은도서관은 51.5%에 달하는 1,726개 도서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51.9%인 347개관, 사립 작은도서관의 51.5%인 1,379개관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 중 거의 절반 가량의 작은도서관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24〉 참조).

2010년 동안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한 1,726개의 도서관중 결측값(무응답)을 제외하

〈표 22〉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 지원유무 현황

항목		지원받음		지원받지 않음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지원여부		1,674	50.0	1,280	38.2	2,954	88.2
공·사립 유형	공립	494	73.8	135	20.2	629	94.0
	사립	1,180	44.0	1,145	42.7	2,325	86.7

* 결측값(무응답) 제외

〈표 23〉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 지원 현황

항목		인력지원*		예산지원*		장서지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지원여부		458	13.7	1,152	34.3	724	21.6	350	10.5	205	6.1
공·사립 유형	공립	232	34.7	385	57.5	232	34.7	135	20.2	65	9.7
	사립	226	8.4	767	28.6	492	18.4	215	8.0	140	5.2

* 중복 응답 포함

〈표 24〉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 독서·문화프로그램 실시 여부 현황

항목		실시		실시하지 않음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실시여부		1,726	51.5	1,549	46.3	3,275	97.8
공·사립 유형	공립	347	51.9	317	47.4	664	99.3
	사립	1,379	51.5	1,232	46.0	2,611	97.4

* 결측값(무응답) 제외

〈표 25〉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 독서·문화프로그램 실시 현황

항목		프로그램수(개)			실시횟수(회)			참가자수(명)		
		빈도	합계	평균	빈도	합계	평균	빈도	합계	평균
독서·문화 프로그램		1,423	13,624	9.6	1,390	80,358	57.8	1,408	1,008,747	716
공·사립 유형	공립	316	2,029	6.4	307	22,584	73.6	311	351,847	1,131
	사립	1,107	11,595	10.5	1,083	57,774	53.3	1,097	656,900	599

* 결측값(무응답) 제외

고 1,423개관에서 실시중인 총 프로그램 수는 13,624개로 1관당 평균 9.6개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실시횟수는 결측값(무응답)을 제외한 1,390개관의 80,358회로 1관당 평균 57.8회를 기록하였고,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결측값(무응답)을 제외한 1,408개관의 1,008,747명으로 1관당 평균 716명이 참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 유형별로 분석하면, 프로그램 실시횟수의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은 1관당 평균 73.6회, 사립 작은도서관은 평균 53.3회에 달하고, 프로그램 참가자수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1관당 평균 1,131명, 사립 작은도서관이 평균 599명으로 조사되었다. 공립도서관이 실시횟수와 참가자수 모두 월등한 성과(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실시 프로그램수의 경우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1관당 평균 6.4개, 사립 작은도서관이 평균 10.5개를 기록하여 도리어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공립에 비해 많은 수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25〉 참조).

5. 결론

본 연구는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전체 작은도서관 3,349개관의 기본정보, 소장자료, 시설 및 설비, 인적자원, 예산현황, 이용 및 이용자,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연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수집된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토대로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각 세부항목에 기반하여 도서관 유형별, 지역별 등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은도서관 3,349개관 중 공립 작은도서관이 669개로 전체의 약 20%, 사립 작은도서관은 2,680개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 공공도서관 분

관 역할을 하는 도서관은 297개(8.9%), 그렇지 않은 도서관은 3,052개(91.1%)로 밝혀졌다.

둘째, 2010년 12월 현재 전국 작은도서관의 총 소장 자료수는 17,548천권으로 1관당 평균 소장 자료수는 약 5,240여 권으로 조사되었고,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평균 8,017권, 사립의 경우 평균 4,548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국 작은도서관의 평균 면적은 약 181.6㎡(약 55평), 평균 열람석 수는 약 27.8석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별도의 전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도서관이 1,414개관으로 조사되어 전체 작은도서관 중 약 4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국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1,874개관에서 총 3,097여명, 도서관 당 약 1.7명의 직원이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2,180개관에서 총 20,771여명, 도서관 당 약 9.5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서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근무중인 도서관은 319개관의 총 391명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전국 작은도서관의 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은 1,425개관이 '행정기관 지원'을 통해, 1,262개관이 '자부담(운영자 자체부담)'을 통해, 535개관이 '후원금'을 통해, 393개관이 '회원회비 및 이용료'를 통해, 440개관이 '기타' 방법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작은도서관의 2010년 연간 총 지출예산은 25,464백만원으로 1관당 평균 760만원의 도서관 운영예산 규모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여섯째, 전국 작은도서관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하는 도서관이 각각 53.9%, 31.7%인데 반해 주중인 평일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비

율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시간은 평일의 경우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동안 운영을 하는 비율이 전체의 49%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주말의 경우는 약 56%의 도서관이 8시간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곱째, 2010년 한 해 동안 2,296개의 작은도서관에서 총 17,725천권의 자료대출을 실시하여 1관당 평균 대출권수는 약 7,720여 권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0년 연간 이용자수는 1관당 평균 6,491명에 달하고, 등록된 도서관회원수는 1관당 평균 886명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은 50%에 달하는 1,674개 도서관으로, 그 중에서 인력지원은 13.7%인 458개관, 예산지원은 34.3%인 1,152개관, 장서지원은 21.6%인 724개관, 프로그램 지원은 10.5%인 350개관, 기타지원은 6.1%인 205개관이 각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 통계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앞의 분석결과가 보여주는 2010년 현재 전국 작은도서관의 소장자료, 시설 및 설비, 인적자원, 예산, 이용현황, 프로그램 등의 인프라 및 서비스 실태는 도서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서관으로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자체나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일정한 재정지원을 받는 공립 작은도서관보다 작은도서관의 대부분(80%)을 차지하는 사

립 작은도서관이 시설 및 설비, 예산 등 운영상태가 더욱 열악한 실정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열악한 재정상황은 신간장서의 부족, 운영인력의 부재로 이어져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자체나 공공도서관 같은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다면 공공도서관과의 상호협력서비스,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자 지원, 프로그램 지원 같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간접적인 대책 강구가 더욱 절실하다.

두 번째로는 본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각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 행정부서의 역할 및 인식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번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의 1단계에서 지자체 담당자들이 확인한 전국 작은도서관의 수와 2단계에서 실제 설문에 응답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작은도서관의 숫자는 각각 4,159개와 2,533로 거의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주었고, 전체 조사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중복·누락되었거나, 명단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운영이 전혀 안 되는 도서관이 발견되는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자체별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상당수의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계 입력의 필요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 담당자들 또한 작은도서관의 정확한 실태조사 및 관리를 위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향후 작은도서관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관리를 위해서는 이를 책임지는 지자체 담당자들과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인식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현재의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인

력의 특성상 통계시스템 입력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전국의 3,349개 작은도서관 중에서 상주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56%에 불과하여 작은도서관 1개관당 평균 1.7명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작은도서관 상주 직원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도서관 운영능력을 갖춘 사서인력은 1개관당 평균 0.1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전무하거나 파악조차 되지 않는 도서관도 497여곳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작은도서관의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통계시스템을 갖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통계 입력이 가능한 담당인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 작은도서관 통계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통계시스템 구축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통계정보 생성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담당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네 번째는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운영시스템이 미흡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립 작은도서관의 10% 정도는 일주일 중 운영일이 3일이 채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당수의 작은도서관이 운영일이나 운영시간 측면에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평균 운영일 수와 운영시간이 미흡한 작은도서관들의 비율을 낮추는 등 주민의 이용을 위한 합리적인 운영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나 패널티를 적용하고,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 관리·감독이 가능한 체계를 우선 갖출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 연계의 다각화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이 지역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도서관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호대차서비스, 순회사서 지원 등 인력 지원, 예산 지원, 장서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상호대차서비스는 전체 작은도서관의 9.5%, 순회사서를 포함한 인력 지원은 13.7%, 예산 지원은 34.3%, 장서 지원은 21.6%, 각종 프로그램 지원은 10.5% 등의

비율로 지역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아직 예산이나 장서 지원 같은 물질적 지원에 비해 인력 지원이나 프로그램 지원 등의 수준은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작은도서관의 현황 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통계조사나 나아가 작은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의 협력을 위한 작은도서관 컨소시엄 구성, 분관시스템 운영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2005. 『작은도서관 실태 조사 보고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_____. 2006.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_____. 2006. 『작은도서관(문고 포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_____. 2007.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_____. 2007. 『2006 작은도서관 조성평가』.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 2007. 『2007 전국의 문고 통계와 현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8. 『생활밀착형 사립 작은도서관의 연계·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 새마을문고중앙회. 2008. 『2008 새마을문고 운영 실태조사』. 서울: 새마을문고중앙회.
- 문화체육관광부. 2009. 『도서관 통계자료를 이용한 의미분석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안인자, 윤소영, 차성중. 2011. 작은도서관 통계 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375-393.